

Weekly Brief
R&I trends in **Europe**

KERC R&I News

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

2023.12.15.

Content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및 ICT 협력 강화(12.13)
- ② EU 연구 장관,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 논의(12.8)
- ③ EU,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법안 확정(12.8)
- ④ 11개 EU 회원국, 양자 기술에 관한 유럽 선언에 서명(12.5)
- ⑤ 집행위, FP10을 위한 자문단 발족(12.5)
- ⑥ 집행위, 연구 보안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 준비(12.7)
- ⑦ 칠레-EU, 제10회 R&I 공동운영위원회 회의 개최(12.1)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집행위 JRC,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2023 발간(12.14)
- ② 집행위, 과학혁신 내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정책 브리핑 발표(12.13)
- ③ 집행위, Horizon 2020 내 인문사회과학(SSH)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12.12)

▶ EU 연구성과

- ① 청소년의 정신병적 경험(환각, 망상 등)에 대한 지식 강화 연구
- ② 중세시대 교육 내 여성의 역할 재고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및 ICT 협력 강화(12.13)

- 대한민국-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성명(12.13) 과학기술 관련 주요 내용
 - 양국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2년 11월 한국에서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고 경제 안보, 무탄소 에너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프로그램 등 향후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에 합의
 - 경제 안보, 신홍 기술, 우주, 군비 통제, 안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수준의 정책 협의 및 연례 정부 전체 양자 사이버 정책 협의 등 양자 대화 및 교류 확대
- ※ REAIM Summit 2024 공동 주최를 통한 군사 분야 내 AI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지속
- ※ '24년 상반기 내 네덜란드에서 양자간 사이버정책 협의 지속
 - 두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혁신 및 첨단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이며 양국 간 무역 관계 및 투자 증진에 전념하고 있음을 언급
 - 두 정상은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각자의 독특하고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정상은 양자간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B2B 협력을 지속 및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 두 정상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관한 정부 간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로 합의
 - 두 정상은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원자력 문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로 합의
- ※ 이에는 인력개발, 핵연료, 안전, 기가와트급 원자로, 소형모듈형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자로의 혁신 등이 포함되며, 이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양해각서 (MoU)에 의해 뒷받침

- 두 정상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과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 운반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양국 협력 증진 의지를 재확인
 - 두 정상은 연구·과학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나 기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 이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는 연구 및 과학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두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유관기관 간 뇌과학 및 디지털 농업 분야 MoU 체결을 환영
 - 두 정상은 교육 분야와 인적 접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지식연구소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 두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합의

<출처: <https://www.goemc.nl/daarnt/diplomatie/daarnt/23/12/13/joint-statement-of-the-government-of-the-republic-of-korea-and-the-government-of-the-kingdom-of-the-netherlands>>

○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 ... 정부간 디지털 협의체 구성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 미키 아드리안센스는 지난 13일 한국-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에 따라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공동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협력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부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를 구성해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 ※ 또한, 이종호 장관은 '12일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의 초청으로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63300017>>

2 EU 연구 장관,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 논의(12.8)

- 지난 12월 8일 경쟁력 위원회에서 EU 회원국의 연구 담당 장관들은 경제 및 산업 회복과 탄력성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 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
 - 이외에도 장관들은 오찬과 함께 R&I 분야의 젊은 연구자 및 성평등 정책 육성에 대해 논의
- 동 경쟁력 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혁신의 영향에 대한 이사회 결론의 다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
 - (1) 연구혁신이 규제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와 지식을 포함시켜 정책 결정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
 - (2) 결론은 모든 수준(국가, 지역, 지방)에서 강력한 R&I 생태계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3) 마지막으로, 결론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R&I 정책에 대한 EU의 주요 목표에 대한 코로나회복기금(RRF)의 정책 영향을 다룸
- 또한 경쟁력 위원회는 유럽 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에 대해 논의
 - ※ 동 이사회 권고는 초안 검토 후 연말까지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
 - 이는 EU 내 연구자 및 연구 경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자를 위한 더욱 매력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 노동 시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4개의 권고는 또한 인정, 경력 비교, 연구자의 균형 잡힌 순환과 같은 영역을 다룸
- 벨기의 의장국의 임기는 '24년 1월 1일 시작될 예정이며, 연구 담당 장관들 간의 비공식 회의는 '24년 2월 14일과 5월 23일 개최될 예정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compet/2023/12/08/>>

③ EU,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법안 확정(12.8)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8일(금)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타협안에 합의
- 적용 범위
 - 동 법의 인공지능 정의는 OECD의 주요 요소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위험 시스템, 금지된 인공지능 적용 또는 조작 위험 있는 AI 솔루션이 아닌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프랑스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군사 및 안보 목적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 외부 용역업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됨
 - 예외적인 경우 법 집행 당국에 대한 제품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허용 등 경찰 및 이민 관리 기관에 대한 다양한 예외가 규정됨
- 금지된 인공지능 사용
 - 동 법은 조작기술, 시스템 취약점 공격,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안면인식 이미지 무작위 수집 등 회복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의 AI 사용을 금지, 해당 분야를 리스트화
 - 운전자 졸음 예방 등 안전 목적 이외, 직장·교육기관의 감정인식 인공지능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 행적에 근거하여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예측치안 소프트웨어의 사용도 금지됨
 - 인종,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근거하여 범주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도 금지됨
 - 유럽의회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인공지능 사용의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테러 방지, 사전 지정한 일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 추적 등 법 집행을 위한 경우 실시간 또는 사후 사용이 일부 허용됨
-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
 - 동 법은 교육, 고용, 핵심 인프라, 공공서비스, 법 집행, 국경관리, 사법

행정 등 인간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큰 인공지능 적용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 보다 강력한 규제를 부과

○ 파운데이션 모델

- 최고 단계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방법(Tiered Approach)'이 채택. 성능 10의 25제곱 플롭(10²⁵ FLOPs) 이상의 컴퓨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
-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에 투명성 의무가 부여되며, 기업 영업 비밀 이외 학습데이터와 관련 세부 내용을 충분히 공개해야 하며,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고 단계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모델 평가, 시스템 위험 추적 및 평가, 사이버보안, 에너지 소비량 보고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됨
-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공통 기술 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파운데이션 모델 제조사 등이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위험 완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도입
- 동 법에 따라 설치될 '인공지능 오피스(AI Office)'는 직권 또는 과학 패널의 권고에 따라 파운데이션 모델 지정에 관한 기준을 추후 제안할 예정이며, 사용자 및 모델 매개변수 수 등이 동 기준에 포함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

○ 기본권 영향 평가

- 공적 기관과 병원, 학교, 은행 및 보험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기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함

○ 인공지능 제조사의 공급망 책임

- ChatGPT 같은 일반목적 인공지능 시스템 제조사는 고위험 분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다운스트림 사업자가 동 법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거버넌스

- 동 법에 따라 각 회원국 관계 당국자가 참여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AIB)가 동 법에 따른 규제 이행을 감독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동 법에 따라 집행위 산하에 설치될 '인공지능 오피스(AI Office)'가 관련 규정 이행을 감독

-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자문 포럼과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어 규제 이행, 잠재적 시스템 위험 인지, 시스템 위험에 따른 AI 모델 분류 등을 자문할 과학 패널을 구성

○ 과징금

- 최소 확정 가격 또는 사업자의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일정 비율 가운데 높은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
- 구체적으로 금지된 인공지능 사용 등 가장 심각한 위반 시 과징금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 시스템 및 모델 공급자의 위무 위반시 3% 또는 1,500만 유로, 허위정보 제공 시 1.5% 또는 750만 유로 가운데 높은 금액

○ 발효

- 동 법의 대부분 사항은 발효 2년 후 적용되나, 동 법의 일부 금지 사항은 발효 6개월 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적합성 평가기관 및 거버넌스 챗터는 발효 1년 후 적용

<출처: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4220&mod=document&pageid=1>>

4 11개 EU 회원국, 양자 기술에 관한 유럽 선언에 서명(12.5)

○ 스페인 의장국은 유럽 전역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양자 기술 생태계 개발을 위해 EU 회원국 및 집행위원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

- 이 선언은 EU의 과학 및 산업 경쟁력을 위한 양자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유럽을 세계의 '양자 밸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그리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몰타, 에스토니아, 스페인 등 11개 회원국이 서명하였으며, 다른 국가도 이를 지지

- 서명한 회원국은 이 선언의 목적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집행위와 협력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기로 합의

<출처: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ropean-commission-welcomes-spanish-presidency-declaration-strengthen-collaboration-quantum>>

5 집행위, FP10을 위한 자문단 발족(12.5)

- 집행위는 EU의 차기 연구 프로그램인 FP10('28~'34)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하고 공식적인 프로그램 준비 작업에 착수
 - 이번 자문단은 연구 경력의 공평성과 발전의 대표적 옹호자인 전 포르투갈 연구부 장관 마누엘 헤이토르가 이끌 예정이며, 이탈리아 연구의회 이사장 마리아 키아라 카로자, '22년 천체물리학 분야 카블리상 수상자 코니 에르트, 독일 폭스바겐 재단 이사장 조지 슈터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
 - 자문단은 Horizon Europe의 자문을 맡았던 파스칼 라미의 전문가 그룹을 본떠 만들어진 것으로 내년 10월경 FP10 초기 구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지난 12월 5일 개최된 자문단 그룹의 발족 회의에서 마누엘 헤이토르는 자문단의 주요 활동 방향을 공개
 - 헤이토르는 지난 40년간 유럽의 연구 프로그램은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을 찾고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힘
 - 헤이토르는 '30년까지 EU의 GDP 연구개발투자비율 3% 달성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R&I를 위한 국가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재무 장관들과 긴밀히 논의할 것을 약속
 - 자문단은 기초과학과 전략적 R&I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포용성을 확장하여 R&I 성과 저조국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헤이토르는 연구 경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유럽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하나로, 유럽 R&I 성공은 인재 양육 및 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헤이토르의 관점이 이번 자문단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자문단 발족에 많은 관계자들은 자문단이 EU R&I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 의견을 전함
 -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브뤼셀 사무소장 메르메는 이 그룹이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장을 하면서도 기초과학을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를 위해 연구혁신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함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 전 국장 로버트 얀 스미츠는 현재 그룹도 좋지만 다른 관점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전재무부장관이나 전총리 등을 포함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함

○ 집행위는 내년 10월 발표될 자문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FP10 계획을 구상하여 '25년 중순경 발표할 예정

※ 자문단의 주요 프로파일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fp10/commission-assembles-advisers-framework-programme-10>>

6 집행위, 연구 보안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 준비[12.7]

○ 집행위는 외국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이사회 권고안을 준비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은 '19년 말부터 EU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 수행 기관 등을 겨냥한 외국의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 이는 오픈 사이언스와 같은 개방성 확장으로 인해 이러한 공격이 더욱 쉬워졌기 때문

○ 준비 중인 권고안은 유럽이 전면적 개방에서 '가능한 만큼 개방하고 필요한 만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as open as possible, as restricted as necessary'

- 집행위는 국제협력이 연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연구자나 대학들이 갈수록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수행 기관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 집행위는 EU가 민감한 연구나 기술을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빼앗길 위험 없이 과학 협력을 개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허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균형을 찾고자 함

○ 집행위는 '24년 1월 초까지 공격 건수 등을 조사하고, 1분기까지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지난 1월 발간한 외국 간섭에 관한 내부 문서에서 Horizon Europe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평가 절차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의무적인 보안 자체 평가 요소를 도입
- 한편 대학들은 이러한 EU의 강화된 보안 접근방식이 과학자들의 학문적 선택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sovereignty/european-commission-seek-council-recommendations-research-security>>

○ 집행위원회는 연구 보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개시(12.6)

- 이는 책임있는 국제화를 위한 가이드 원칙을 제시하고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부문별 수준의 주요 정책 조치를 제시하기 위함
- EU는 연구가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연구 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 권고안은 EU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EU 연구원 및 학계의 인식을 높이고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예정

※ 의견수렴은 12월 6일부터 '24년 1월 3일까지 진행

<출처: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056-Boosting-research-security-in-the-EU-guidance_en>

7 칠레-EU, 제10회 R&I 공동운영위원회 회의 개최(12.1)

○ 칠레는 선진 과학기술 시스템과 공유된 가치를 지닌 EU의 중요한 연구혁신 파트너 국가로, 양국은 다음 분야의 협력을 강조

※ 동 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DG RTD)의 국제협력국장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소와 칠레 과학기술지식혁신부 국제협력국장인 곤잘로 아레나스가 공동 의장을 맡음

- 연구인프라, 원자재, 청정 수소, EU 미션, 해양 및 극지 연구, 우주 연구 및 지구 관측, 연구원 이동성, 디지털 전환 등

※ 이번 회의는 '24년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으로 개최됨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10thchilejointsteeringcommitteemeetingresearchandinnovationcooperation2023-12-12_e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집행위 JRC,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2023 발간(12.14)

- EU의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EU의 R&D 투자 증가율은 '22년에 13.6% 증가('21년 대비 2배 이상)
 -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25%에서 16%로, 미국의 경우 16%에서 12.6%로 증가율이 낮아짐
- 세계 상위 2,500명의 R&D 투자자의 총 R&D 투자량은 지난 해에 비해 1,410억 유로 증가하며 기록을 갱신
 - 스코어보드가 모니터링한 세계 상위 2,500명의 R&D 투자자의 총 투자는 1조 2,500억
 - 미국 기업은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EU와 중국은 각각 17.5%와 17.8%로 2위를 놓고 경쟁
- EU는 세계 최고 R&D 투자자 2,500명 중 367명을 보유
 - 기업의 절반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있으며, 이들은 EU 내 민간 투자의 73%를 담당
- 자동차 부문은 EU 내 R&D 투자의 총 32%를 차지
 - 그 뒤를 이어 의료(19.7%), ICT 생산(14.4%), ICT 서비스(8%) 부문이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항공우주, 국방, 금융, 에너지, 화학, 건설 등 분야에서도 두드러짐
- EU 상위 1,000개 R&D 투자자 중 18%는 중소기업이며, 그중 약 3분의 2가 보건 부문에 속함

※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시각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출처 : https://joint-research-centre.ec.europa.eu/jrc-news-and-updates/industrial-ri-investment-eu-growth-highest-2015-2023-12-14_en>

2] 집행위, 과학혁신 내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정책 브리핑 발표(12.13)

- 동 문서는 유럽의 R&I 정책과 AI법을 기반으로 AI의 채택과 기술의 잠재력 활용을 가속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을 강조
 - 동 정책 브리핑은 ▲과학 분야에서 AI 채택에 대한 장벽 제거, ▲과학 분야 AI를 위한 데이터 및 컴퓨터 생태계 강화, ▲과학에 AI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R&I 투자 파악, ▲AI가 연구 경력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과학 분야의 AI 관련 윤리적 문제 해결, ▲AI 기반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및 평가 조치 등을 강조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ystem/files/2023-12/ec_rtd_ai-in-science-pb.pdf>

3] 집행위, Horizon 2020 내 인문사회과학(SSH) 통합에 대한 보고서 발표(12.12)

- 집행위원회는 Horizon 2020 참가자, 예산 및 분야 내 인문사회과학 통합에 대한 최종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H2020 자금 중 20억 유로가 SSH에 할당되었으며 이는 콜을 통해 할당된 총 자금 310억 유로의 7%에 해당
 - 동 보고서는 Horizon 2020 전반에 걸쳐 SSH 통합에 대해 어떠한 양적, 질적 지원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출처: <https://opecoi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6b7df93-82b3-11ee-99ba-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search>>

3. EU 주요 연구성과

① 청소년의 정신병적 경험(환각, 망상)에 대한 지식 강화 연구

-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어릴 때 환각과 망상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왜 그런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음
 - 젊은 사람들의 최대 20%가 정신병적 증상을 어느 정도 경험하며, 이에는 환각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감각이 촉발되는 지각 현상,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생각을 믿는 망상 등이 포함
 -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젊은이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성인이 되면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으며 자살 행동을 포함한 여러 동반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됨
 - 어린 시절의 외상은 정신병적 증상의 위험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제3자의 개입이 가장 필요한 대상임
-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자금을 지원한 iHEAR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전염병학, 사회과학, 인류학, 신경과학 등 여러 과학 분야를 활용하여 초반의 트라우마와 정신병적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위한 획기적인 다학문적 프로그램을 수행
 - 초기의 인생 경험이 노년기의 정신 건강 및 정신병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팀은 아일랜드의 6,000명의 젊은이를 연구하는 대규모 집단의 데이터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인터뷰 및 신경 영상 연구를 결합
- 동 프로젝트는 역학, 신경생물학, 양질 분석이라는 세 가지 작업 패키지로 구성
 - 첫 번째 연구 패키지를 통해 정신병적 경험의 분포와 위험 요소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약 1명이 환각과 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연구 패키지에서는 환각과 망상 병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미세 운동 능력과 처리 속도에 미묘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
 -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트라우마나 역경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각과 망상을 계속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줌
- 연구 결과, 어린 시절의 높은 자존감은 초기 청소년 환각 및 망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한편, 환각과 망상을 경험하는 어린이는 나중에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고 기능이 저하될 위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상가는 청소년의 정신병적 증상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연구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연구팀은 이제 청소년의 정신병적 경험에 대한 예방적 해결책을 설계할 예정
 -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대마초 남용, 아동기 역경, 부모-자식 관계 불량, 자존감 저하 등 청소년의 정신 질환에 대한 비특이적 위험 요소를 다루는 것 등이 있음

① iHEAR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딩 : 유럽연구위원회(ERC) • 기간 : 2017.06.01.~2023.05.31. • 예산 : 약 178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Royal College of Surgeons in Ireland (아일랜드)
--

<출처 :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47668-enhancing-knowledge-about-psychotic-experiences-in-young-people>>

2 중세시대 교육 내 여성의 역할 재고

- MSCA의 지원을 받는 ActiLit 프로젝트는 지식의 기능과 지식의 다음 세대로의 전달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까지 여성은 전근대 시대의 신학, 철학 또는 문학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없다고 가정되어 있음
 - 이는 교회가 신학을 공적으로 가르치거나 신앙을 논의하는 문제에서 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중세에는 라틴 학교나 대학교도 여성들에게는 개방적이지 않았음
 - 그러나 실상은 종교적인 여성들이 종종 높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장소에서 이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음
- ActiLit 프로젝트는 신중한 분석을 적절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중세 여성의 문해력이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여성이 쓴 원고들이 기록보관서와 도서관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연구팀이 이를 별도로 찾아내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
 - 연구팀은 편지와 회계 장부 등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여성 수도원과 가족 재산의 기록 보관소와 원고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연구는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찾아내었으며, 한 예로 여성의 행정 저술 발견은 당시 공공 및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또한 동 프로젝트는 여성이 작성한 문서의 전송이 학술 기관이나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남성의 것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
 - 이로 인해 교육에서 여성의 역할이 과소 평가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수세기 동안 유럽의 여성들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연구 결과는 중세시대 이후 여성의 자유와 기회가 직선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인식을 바로잡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실제로 이러한 자유는 정치 권력 구조에 따라 역사 전반에 걸쳐 크게 변동해왔음
 - 연구진은 “모든 사회는 여성의 기회를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상황이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 연구진은 학문적 교육의 장소로서 수도회나 대학과 같은 기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성 종교 공동체와 가정의 기능이나 교육 역학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교육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① ActiLit 프로젝트

- 펀딩 : MSCA
- 기간 : 2021.06.15.~2023.06.14.
- 예산 : 약 17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Heinrich-Heine-Universitaet Dusseldorf (독일)

<출처 :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4764-rethinking-role-of-women-in-medieval-education>>